

제목: "무엇을 기다립니까?"

말씀: 누가복음 2장 25-39절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건을 말씀으로 증거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시므온과 만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1. 하나님의 _____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2.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나의 _____를 기다려야 합니다. (28-29절)
3. 주신 말씀을 _____ 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34-35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혁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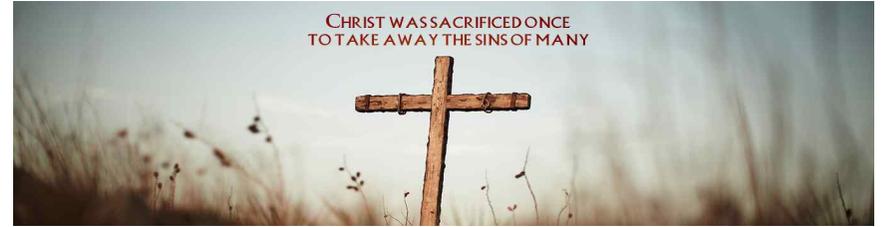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성경말씀 누가복음 2장 25-3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2: 35-39 신약 25 페이지 Presider

말씀 "무엇을 기다립니까?"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양/헌신기도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성숙함인가?)

오래 전 미국에 이민을 오기 전 어리기는 했지만 미국이라는 곳을 막연하게 동경했던 때가 있었다. 미국이라는 곳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상식도 없었던 때였지만 미국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한국과 비교해 볼 때에 훨씬 편하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반대가 되었지만 적어도 그 때에는 그랬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막상 이민을 와서 보니 어린 나이였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갔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 그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깨달음과 지금의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전에 젊었을 때에는 6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단들이 있었지만 지금 60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생각은 이전에 가진 생각보다 더욱 깊고 좋은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직접 연결이 된다. 이전에는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뛰어가던 신앙이라고 설명한다면 지금은 그 때보다도 깊어와 넓이가 훨씬 더 깊고 넓어졌다고 생각 된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전에는 계단식으로 묵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삶에 더욱 가깝게 이해할지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이실까?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전부 쓰임 받으며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들이 이론에 불과하고 주석을 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결과와 열매 중심의 묵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는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내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러한 것이 성숙인가?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간 묵상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숙하다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 같이 모든 것에 완전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솔직해 지고 겸손해지며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 나그네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너무나 나 잘난 체를 쉽고 강하게 나타내며 살았던 것 같다. 하나님 없는 나 스스로의 잘난 것을 스스로와 세상에 증명이라도 하듯이 살아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러워진다. 하루를 지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보다 나를 더욱 드러내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편 4-5절)라는 시인의 고백을 들려준다. 이제라도 내가 들어나는 삶 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머지 인생이라도 허망함을 따라다니지 않고 조금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 가리라 다짐해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해 감을 기뻐하신다. 글의 성숙이 아니라 인생의 성숙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대림절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6. 12월 계획

12월 17일(토) 정기당회 오전 8시

12월 25일(주) 성탄 주일 및 성탄절 예배

1월 1일(주) 신년예배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